

韓·佛 原産 및 學會 협력각서 교환



한국과 프랑스의 원자력산업회의 및 원자력학회 간의 협력각서 교환이 5월18일 프랑스 파리의 힐튼호텔에서 安秉華 韓國原産 會長과 레미갈레 프랑스原産(學會)會長, 韓弼淳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협력각서의 교환으로 韓·佛 양국은 원자력 기술정보와 경험자료의 교환 및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지원, 홍보자료의 상호교환 등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력각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쌍방 합의에 의하여 5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영구협력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이번 협력각서 교환은 일본, 캐나다에 이은 세번째의 조인으로 서 구주지역과의 협력창구를 열었다는데 새로운 의의가 있다.

이번 조인식에는 한국에너지연구소 全豊--- 다목적연구로 건조사업부단장과 原産 呂聖源 국제협력부장 등이 배석했다.

새로운 原子力協力時代 열어

=모스크바國際會議에서 國家間 정보교환망 구성=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安秉華회장은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原子力發電事業者協會(WANO)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한국대표로 原電의 安全性 向上을 위한 국제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基調演說을 하였다.

이번의 WANO會議은 소련 체르노빌事故 이후 각국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이 모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범세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자는 1986년 11월의 파리會議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WANO의 네트워크는 英國 런던에 중앙조정 센터를 두고 歐洲지역은 프랑스 파리에, 美洲 지역은 美國 아틀란타에, 東歐지역은 소련 모스크바에, 그리고 아시아지역은 日本 東京에 각각 지역센터리를 두고 있다.

東京센터리는 지난 3월14일 東京 프레스센터에



서 창립회의를 가졌는데, 會員社는 일본의 9개 전력회사와 일본원자력발전(주) 및 電力中央研究所가 가입돼 있으며, 外國會社로는 한국의 韓國電力公社를 비롯하여 대만전력공사, 인도 원자력공사,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